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돕는다

전주시, 올 하반기 중기육성자금 용자 지원 신청 접수 내일부터... 중기 3억원 이내·소상공인 2000만원까지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총 59억원 규모로, 제조업 42억원과 소상공인 2억원, 청년기업 15억원을 용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증일반기금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비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 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

역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업체에 포함시키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융자지원 신청은 전주시 현장신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945)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지역 28개 클럽은 19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오기탁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등 협약대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20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시민행복지수 'UP'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 28개 클럽, 전주시와 결연봉사 협약

전주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가 소외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지역 28개 클럽은 19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오기탁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등 협약대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20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시와 국제로타리3670지구가 민·관 거버넌스 구

축을 통해 민간단체의 우수한 인력과 예산을 시정에 접목해 공평하고 누수 없는 봉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2년 7월 체결한 협약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는 전주시 28개클럽 회장들과 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총 5억원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또, 오 총재의 취임과 이번 협약식을 기념해 쌀 150포를 별도로 기부했다.

한편, 국제로타리3670지구는 지난 2012년 7월 협약 체결 이후 매년 2억원 상당의 기부를 해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19일 새벽 4시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3명이 숨지자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이 추가 인명 수색을 위해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

48년된 서노송동 여인숙서 화재 발생

'달방'에 살며 폐지 줍던 노인 투숙객 등 3명 참변 펌프차 등 장비 30대·인력 86명 동원 불길 잡아

19일 오전 4시 3명의 노인이 숨진 참사가 벌어진 전주의 한 여인숙은 장기투숙객이 많이 이용하는 지어진 지 48년된 노후 건물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여인숙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목조-슬라브' 구조의 낡은 건물로 1972년에 사용승인됐다.

이 곳의 전체면적은 72.94㎡로 방한 개에 6.6㎡(약 2평) 남짓. 모두 11개의 객실이 오밀조밀 박혀있다.

갑작스런 화재로 여인숙 3번째 방 K모(83·여)씨와 7번째 방 T모(76)씨, 8번째 방 신원 미상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바 '달방' 생활을 하던 이들이 잠을 자다 숨진 여인숙 방 한칸의 가 격은 한달에 12만원 수준. 막대한 인

생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 먹고사는 보금자리였다.

달방은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허름한 여관에서 선불로 일정 금액을 내고 장기투숙을 하는 것을 말한다.

T씨 등은 폐지나 고물을 수거하며 장기투숙했고, K씨는 이 곳에서 숙식하면서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름은 여인숙이지만, 사실상 '쪽박촌'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비좁은 공간에서 고령의 노인들이 불길을 피해 탈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여인숙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한 주민은 "새벽에 갑

자기 '펑'하는 폭발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화재의 기세가 강한 상황이었다.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 이 문이나 창문 바깥으로 뻗어 나올 정도로 거세게 일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펌프차 등 장비 30대와 인력 86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이 불로 여인숙 건물이 모두 타 무너져내렸다.

소방 관계자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난 데다 건물이 노후화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조합원에 금품 건넨 남원 모 농협조합장에 벌금형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19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유권자 4명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마을을 돌며 조합원 수십명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강석훈 기자

'패스트트랙 고발' 국회의원 18명 출석 추가통보

경찰, 현재까지 68명 출석 요구 조사에 응한 의원은 17명 불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해볼 것'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총통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18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총통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국회의원 중 추가로 영장 판독이 완료된 18명에 대해 지난 16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1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7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개별 의

원의 구체적인 출석요구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8명 의원에게 소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 않다. 이 날까지 민주당 의원 15명, 정의당 의원 2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의원들도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직까지 단 한명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반을 포함해 현재까지 출석을 요구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엄홍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은 경찰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의 거듭된 불응에 개별 접촉을 통해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데 '남의 입장(불응)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총통과 관련해 수사 중인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뉴스1

'왜 안 만나줘'... 별거 중 아내 흥기로 찢은 60대 검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아내를 흥기로 찢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쯤부터 전주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내 B(53)씨의 왼쪽 팔을 한 차례 흥기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기에 흥기를 들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흥기를 미리 준비한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설공단, 영화 '변산' 무료 상영

23일 시민행복들서

전주시설공단이 오는 23일 오후 8시 화산체육관 시민행복들에서 영화 '변산'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변산'은 전북부안 변산을 배경으로 한 청춘 드라마로 고된 청춘 '학수(박정민 분)'가 고향에 내려가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영화 '동주', '박열'의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아동이나 청소년도 보호자와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하며, 영화 상영일에는 시나리오를 쓴 김세경 작가가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영화 상영에 앞서 오후 7시부터는 식전행사로 밴드 공연과 지역의 소상공인이 만든 간식도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중고책 기부 이벤트를 통해 입실 산계영 등의 특산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야외 무료 영화상영은 공단이 야외 휴식공간에서 좋은 영화를 시민과 함께 즐기 위한 '시민행복들 낭만영화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영화 '소나기' 상영 이후 두 번째로 마련한 행사다.

영화 상영되는 공간인 시민행복들은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공단은 그 동안 이곳에서 시토크와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다.

정성환 이사장은 "공단의 야외 유희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평화도서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위해 임시휴관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공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임시휴관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도서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실 등은 19일부터 이용할 수 없으며, 열람실 등은 오는 25일부터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의 정형적인 독서실 분위기를 탈피하고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책 놀이터 등 생동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 정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기존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을 멀티탭 및 개별 조명이 공급되는 개방형 열람대로 재배치기로 했다. 또, 낡은 서가 등도 교체된다.

공사 기간 중에는 열람실을 비롯한 도서관 전체 이용이 불가능하며, 기대출된 도서 반납은 가능하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평화도서관의 휴관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더 나은 도서관 환경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재개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오늘까지 신규공무원·임용후보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전주시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덕진예술회관에서 올해 신규임용공무원과 임용후보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생활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첫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강을 통해 지난 민선6기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시작으로 지난 민선6~7기 5년간의 시정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현직 부서장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 △전주시 기반현황 및 주요사업 △지방공

무원 인사 및 복무 △공직자의 자제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본 교육에 앞서 진행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환영식'에서는 부모님 100여명도 함께 참석해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신규 공무원들은 교육 둘째 날인 20일에는 △노동조합의 이해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전주 △감사와 청렴한 공직생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에 이어, △공공부처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 △전주역 앞 '첫맛중길' 등을 방문해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